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이영익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 교수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Young-Ik Lee

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ports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전공 대학생 3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 Version.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참여 자세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반대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다. 또한 흥미와 이해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다. 운동참여 자세가 높을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높다. 또한 흥미와 이해가 낮을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낮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다.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높고, 부정적일수록 과제 및 자아성향유형이 낮다.

주제어 : 체육전공계열, 대학생, 운동참여태도,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85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processed for frequenc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5.0.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from these analyses. First,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self-esteem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Second,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Third, it was found that all the sub-variables between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are related.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Major, college students,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self-esteem,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rresponding Author : Young-Ik Lee(undongsarang@dhu.ac.kr)

Received March 29,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25, 2019

Published May 28, 2019

1. 서론

대학은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학업 성취를 추구하고 미래 사회의 주축을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대학에서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적주의의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 지는 등 이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현 대학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1]. 현 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화된 교육과 학점으로 인한 경쟁구도를 조성하며, 필요한 지식만을 습득하는데 중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그 동안 부족한 경험과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자아를 지니고 대학이라는 환경을 접하게 된다[2]. 대학에서는 학업의 중요성, 선후배와의 대인관계 등 기존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요구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3].

신체적인 교육 즉 체육은 우울증, 대인기피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와 약물중독, 자살 등 사회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 규범, 가치, 태도, 경험 등을 내면화시켜줄 수 있으며,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예방하고 신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에게 운동이란 매개체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신체활동 부족의 문제 또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4, 5].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대한 중요성을 전달하기에 앞서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얻어지는 결과를 토대로 체육의 중요성을 다른 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체육전공 대학생의 진로를 주제로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한 연구[6]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7], 체육전공자의 진로장벽검사 도구를 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2],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교육과정 인식과 만족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8, 9]. 또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셀프리더십,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자기효능감, 교육서비스품질, 기대충족, 이탈의도 등 다양한 변인들 간 관계를 검증한 양적연구가 중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10-16].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검증한 연구와 스포츠활동 목표수준과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만 이루어 졌을 뿐 신체활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1, 4]. 이와 같이 신체활동을 주제로 선행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행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운동수행능력이 향상되면 신체적 건강만이 아닌 심리적 행복감도 향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다른 전공의 비해 비교적 신체활동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심리적 요인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리적 행복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태도 및 성찰이 필요한데 이는 자아존중감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Bandura[17]가 자아존중감 이론을 처음 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의 형성 과정을 살펴 보거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방법,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18, 19].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은 주변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목표들이 존재한다. 운동 수행자가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 중 자신의 신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과제지향적인 목표성향과 자아지향적인 목표성향으로 구별할 수 있다[20]. 성취목표 이론은 신체활동 상황에서 특성적 또는 상황적 목표 개념 속에서 검증되고 있으나 아직 어떠한 목표성향개념이 어떠한 상황에서 명확히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21]. 이에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구체적인 목표성향이 운동을 참여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학생

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고 나아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시키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으로 설정한 후, 편의표집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91명에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중 일관된 패턴으로 작성하여 불성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6부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8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Object of study

Variable	Sort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309	80.3
	woman	76	19.7
Grade	first year	106	27.5
	second year	115	29.8
	third year	103	26.7
	fourth year	61	15.9
Major	individual sport	160	41.6
	interpersonal sport	144	37.4
	group sport	81	21.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배경변인을 묻는 3문항, 운동참여태도를 묻는 12개, 자아존중감을 묻

는 10문항, 성취목표성향을 묻는 13문항,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정방법에는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식은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을 실시하였다. 높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요인 적재치 수치는 .4 로 제한하고 있다[22]. 이에 근거하여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4이상인 문항만 추출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2.2.1 운동참여태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Kim[23]이 사용한 설문지를 연구 목적의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운동참여태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운동참여태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운동내용의 흥미 및 이해 2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3.398%,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KMO=.883($\chi^2=1842.615$), $p=.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신뢰도는 .735-.877로 나타났다.

Table 2.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α
	Participation status	Interest and Understanding	
E. P. A 9	.866	-.011	.877
E. P. A 11	.861	.012	
E. P. A 10	.848	-.026	
E. P. A 7	.840	-.074	
E. P. A 12	.696	.162	
E. P. A 4	.433	.800	.735
E. P. A 3	.157	.800	
E. P. A 6	-.056	.631	
E. P. A 2	-.177	.590	
E. P. A 8	.105	.570	
Eigenvalue	4.170	1.170	
Variance	41.702	11.696	
Cumulative	41.205	53.398	

KMO=.883, $\chi^2=1842.615$, Sig=.001

2.2.2 자아존중감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해 Scanlan[24]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Jung[25]이 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연구 목적의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부정적

1문항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6.465%,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KMO=.861(x^2=1645.646)$, $p=.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840-.846으로 나타났다.

Table 3. Self-Esteem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α
	Positive	Negative	
S. E 1	.915	.072	.846
S. E 2	.902	.116	
S. E 7	.573	-.158	
S. E 4	.530	-.100	
S. E 6	.505	-.265	
S. E 9	.039	.910	
S. E 10	-.052	.795	
S. E 3	-.005	.743	
S. E 5	-.028	.530	
Eigenvalue	7.038	1.043	
Variance	44.872	11.593	
Cumulative	44.872	56.465	

KMO=.861, $X^2=1645.646$, Sig=.001

2.2.3 성취목표성향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성취목표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Duda & Nicholls[26]가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Kim[27]이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취목표성향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성취목표성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분석 과정에서 .4이하의 낮은 부하량 및 공통성을 보인 과제성향유형 1문항, 자아성향유형 3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총 분산은 56.429%, 2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KMO=.897(x^2=1716.611)$, $p=.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786-.876으로 나타났다.

Table 4.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factor analysis

Question	1	2	Cronbach α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A. G. O 8	.991	-.198	.876
A. G. O 7	.686	.073	
A. G. O 13	.669	.117	
A. G. O 10	.575	.260	
A. G. O 9	.500	.185	
A. G. O 12	.462	.292	
A. G. O 3	-.021	.850	.786
A. G. O 1	.004	.773	
A. G. O 6	.062	.590	
Eigenvalue	4.516	.562	
Variance	50.181	6.249	
Cumulative	50.181	56.429	

KMO=.897, $X^2=1716.611$, Sig=.001

2.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설문받기 위해 연구자가 서울에 위치한 K대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에게 성실히 설문에 응답할 것을 부탁한 뒤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 완료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2.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Version. 15.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처리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들의 운동참여태도 및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중다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변인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간 관련성 검증을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Table 5 와 같이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가 .8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참여자세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364$), 흥미 및 이하는 부정(-)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beta=-.146$).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19.0%($R^2=.190$)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Factor	M(SD)	1	2	3	4	5	6
Participation status(1)	3.47(.83)	1					
Interest and Understanding(2)	2.39(.84)	-.383**	1				
Positive(3)	4.10(.67)	.420**	-.285**	1			
Negative(4)	2.26(.92)	-.375**	.412**	-.526**	1		
Task orientation(5)	4.44(.59)	.246**	-.237**	.468**	-.371**	1	
Self tendencies(6)	4.48(.62)	.205**	-.228***	.325**	-.316**	.655**	1

**p=.01

Table 6.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self-esteem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ositive				Negative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3.359	.200		16.837 (.001)	2.412	.266		9.066 (.001)
Participation status	.294	.040	.364	7.321 (.001)	-.279	.054	-.254	-5.212 (.001)
Interest and Understanding	-.117	.040	-.146	-2.939 (.001)	.344	.053	.315	6.466 (.001)
	R=.441 R ² =.190 F=46.112(.001)				R=.475 R ² =.221 F=55.526(.001)			

Table 7. exercise participation attitud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4.274	.188		22.689 (.001)	4.437	.199		22.262 (.001)
Participation status	.131	.038	.183	3.444 (.001)	.104	.040	.138	2.588 (.010)
Interest and Understanding	-.119	.038	-.167	-3.151 (.002)	-.131	.040	-.175	-3.278 (.001)
	R=.291 R ² =.080 F=17.633(.001)				R=.262 R ² =.064 F=14.028(.001)			

Table 8.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sk orientation				Self tendencies			
	B	SE	β	t(sig)	B	SE	β	t(sig)
(Constant)	3.325	.242		13.749 (.001)	3.963	.271		14.639 (.001)
Positive	.335	.046	.378	7.208 (.001)	.203	.052	.219	3.911 (.001)
Negative	-.112	.034	-.172	-3.274 (.001)	-.138	.038	-.201	-3.597 (.001)
	R=.491 R ² =.237 F=60.514(.001)				R=.367 R ² =.130 F=29.759(.001)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참여자세는 부정(-)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54$), 흥미 및 이해는 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5$).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22.1%($R^2 = .221$)로 나타났다.

3.3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향유형에서 참여자세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83$), 흥미 및 이해는 부정(-)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67$).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8.0%($R^2 = .080$)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아성향유형에서 참여자세는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38$), 흥미 및 이해는 부정(-)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5$).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6.4%($R^2 = .064$)로 나타났다.

3.4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향유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78$),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정(-)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2$).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23.7%($R^2 = .237$)로 나타났다.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자아성향유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219$),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정(-)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1$). 회귀식의 설명력은 전체변량 중 13.0%($R^2 = .130$)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앞서 제시되었던 본 연구의 가설과 결과를 중심으로

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태도의 하위요인 중 운동의 참여자세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흥미 및 이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An[2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생들의 체육수업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Oh & Ynu & Lee[29]는 체육수업 참여태도는 대학생들이 자아를 인식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Jung & Kim & Cho[5]는 학생들의 체육수업 참여태도와 기본적인 심리요구의 관계를 규명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확인했을 때 운동참여태도는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움직임 즉 스포츠 활동 경험을 통해 상당 부분 자아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나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해 주어야 하며, 교수는 대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신체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참여태도의 하위요인 중 운동의 참여자세는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의 흥미 및 이해는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i[30]의 연구에서 여중생이 운동참여로 인해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아지면 체육수업의 목표지향성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Moon[31]의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들이 운동수행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유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운동수행이 지속되고 운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좋아질수록 성취목표성향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운동참여는 대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성취감, 즐거움 등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몰입,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32]. 이에 교수는 대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태도가 산만하다면 수업에 대한 목표설정이 어려울 것이며, 교수가 제시한 목표 또한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인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과제성향유형과 자아성향유형의 부적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33]의 연구에서 경호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은 성취목표성향의 하위요인 중 과제성향유형 요인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Kim[18]은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지향성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인지하는 의미에 자아존중감이 기초가 되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성취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은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34]. 이처럼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자아존중감을 인지하고 있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취목표지향성에 더욱 영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방향의 목표를 지향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목표성향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육전공 대학생 3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 Version. 1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표준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자아존중감에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와 성취목표성향에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전공계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목표성향에는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이후 진행될 연구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게 된 목적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에게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체육전공 대학생의 운동참여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이 미친다는 결과를 제공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외에 다른 변인을 통제하고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같거나 비슷한 주제로 진행될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변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체육전공 대학생들의 운동참여태도가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성취목표성향에 영향이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체육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계열 대학생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M. Chae. (2014). *The Effect of Sport Club Activities on Self-esteem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in Physical Education Colleges*. Master's thesis. KM University, Seoul.
- [2] K. S. Kim. (2010). *A Study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an Instrument for Testing Physical Education Students' Career Barriers*. Doctoral dissertation. KM University, Daegu.
- [3] Y. J. Kim. (2012).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ttitude depending on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College Students in Physics Department*. Master's thesis. KH University, Gyeonggi.
- [4] J. Y. Kim.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goal of sports activity and physic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CA University, Seoul.
- [5] J. H. Jung, B. Kim & H. S. Cho. (2011).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Experienced by the Students during Physical Education Classes on Their Attitudes toward Class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6(3), 41-53.
- [6] J. J. Park. & A. R. Hong. (2016). Direction of University Career Education through Career Perception of Sports-relat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 23(3), 65-88.
- [7] M. R. Choi. (2006). The relationship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allied physical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19(2), 289-300.
- [8] D. S. Ryu, M. S. Park & J. K. kim. (2014). The Effect of Education Satisfaction and Evaluation in the Employment Supporting Program on Employment

- Barrier Awareness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orts Related Majoring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4), 293-305.
- [9] Leiyu. Yan. (2016). *Awareness, Choice-Motivation about Curriculum and Investigation of Career Choice in Korea and China College Students Majoring Physic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WK University, Jeonbuk..
- [10] M. J. Koo, B. I. Kang & S. Y. Baek. (2013).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through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7(4), 125-133.
- [11] S. D. Kim.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Member Inter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nd Degree of Class participation for Physical College Freshmen. *The Korea Journal of Sport*, 14(3), 471-481.
- [12] W. K. Kim & E. J. Kim. (2012).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Efficacy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7(2) 65-77.
- [13] H. S. Kim, J. S. Shin & Y. K. Lee.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Major Typ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port*, 12(1), 559-569.
- [14] K. W. Nam. & K. S. Cho.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sense maturity of sports-relat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497-507.
- [15] K. M. Lee. & Y. J. Choi. (2018). The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of Sport Related Majoring Students.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 6(3), 61-73.
- [16] M. S. Lee, Y. G. Lee & T. G. Ju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lf-leadership, self-esteem, learning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by colleg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6(2) 131-145.
- [17]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18] M. K. Kim. (2014). The Effect of Taekwondo High School Instructors Leadership Type on players Self-Esteem, Goal Achievement, Athletic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23(3) 281-295.
- [19] Y. H. Ya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quash player's Flow and Self-esteem, Perceived Athletic Performanc*. Master's thesis. YI University, Gyeonggi.
- [20] H. M. Choi & I. J. Kim.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rvice recovery fairness, trust and training behavior of Hapkido gymnasium. *Journal of Korean Alliance of Martial Arts*, 15(3) 75-88.
- [21] J. Yoo. & J. H. Hun. (200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sychological Skill Questionnaire in Sport.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3), 41-50.
- [22] J. J. Song. (2015).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f SPSS/AMOS for the Preparation of a Paper*. Gyeonggi : 21cbook.
- [23] J. E. Kim. (1996). *The research on the school life of students in the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Master's thesis. HY University, Seoul.
- [24] Scanlan, T. K & Lewthwaite, R(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etition for male youth sport participant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6, 208-226.
- [25] Y. K. Jung. (1997). *The influence of sport participation motivation, arousal seeking and affects on the behavior of sport commitment*. PS University, Pusan..
- [26] Duda, J. L & Nicholls, J. G(1992). Dimensions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schoolwork and s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90-299.
- [27] B. J. Kim. (2001). Goal Orientation as a Predictor of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Youth Spor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12(1), 125-140
- [28] J. M. An. (2012).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hysical Education Class Attitud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CN University, Jeonnam.
- [29] K. J. Oh, S. M. Yun & H. S. Lee. (2007).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Participating in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Less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6(3) 293-303.
- [30] J. H. Choi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s and Objective-Orientednes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of Middle School Girls College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31] P. K. Moon. (2014). *The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esteem and exercise adherence of participants in school sports clubs*. Master's thesis. Jejun University, Jeju.
- [32] K. R. Kim, S. K. Kim & M. K. Park. (2012). The Structural Relation of Sports Commitment, Self-esteem, Self-efficacy and Behavioral Inten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fter School Spor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3), 117-130.
- [33] S. H. Cho. (2011). *This research analyses the goal achievement orientations of security service majors and is aimed at identifying its effects to the absorption to training and self esteem*. Master's thesis. Gyeonggi University, Gyeonggi.
- [34] B. H. Kim. (2012). *Effect of elementary*

schoolchildren'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their emotion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GNUE University, Gwangju.

이 영 익(Lee, Young Ik)

[정회원]



- 2007년 9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스포츠의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건강관리, 운동재활
- E-Mail : undongsarang@dhu.ac.kr